

6·25전쟁 당시 미국의 핵무기 정책*

- 아이젠하워 정권을 중심으로 -

이 중 판**

들어가며

루이스 할리(Louis J. Halle)는 그의 저서 『역사로서의 냉전』에서, 냉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후에 깔려있는 인간의 비극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허버트 버터필드(Herbert Butterfield)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인간이 크게 투쟁을 하게 되는 그 배후에는 그들 나름의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가 있다. ... 같은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한 처지를 모르고 있었는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으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세월이 흘러서야 그 당시의 사실을 분석함으로써 배운다. 우리는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냉전으로 투쟁했던 양측 모두의 처지를 조금은 이해하게 된다 ... 나는 국제관계의 실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테제를 주장한다 ... 말하자면, 인간이 투쟁하는 도식의 중심에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가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어떠한 투쟁도 근거에는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처지에서 비롯된다.”¹⁾

* 이 논문은 아카키 칸지(赤木完爾; 일본 게이오대학 교수)의 아래 논문을 번역한 것임. 「朝鮮戰爭と核兵器」『慶應義塾創立150年記念論文集』, 慶應大學法學部刊, 2008年 12月.

** 일본 미키전략연구소 연구위원

1) Herbert Butterfield, “The Tragic Element in Modern International Conflict”, *Review of Politics* vol. 12, no. 2 (April 1950), pp.151~152, 154.

이리하여 냉전을 술병에 갇힌 전갈과 독거미가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생존투쟁과 비유하고 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이 싸움을 포기하면 상대방에게 물려 죽는다고 생각한다. 서로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정세이다. 이것이 할리의 견해다.²⁾

냉전이 끝난 오늘날에는, 이러한 냉전을 통하여 형성된 쌍방이익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비유가 이용되기도 한다. 이것은 냉전초기에 등장한 핵무기가 가져온 효과를 중시하는 것이다. 그 예를 2002년에 소설가 마르텔(Yann Martel)이 저술한 『파이 이야기』³⁾에서 찾아보자. “풍랑을 만난 배에서 구명정으로 옮겨 탄 15세의 소년과 호랑이가 태평양을 표류하면서 공존하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둘 사이는 서로 소통하는 언어가 없으므로 합리적인 토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양립하는 이해(利害)관계가 있었다. 호랑이에게는 소년이 잡아준 생선을 먹을 수 있다는 이익, 또한 소년은 호랑이로부터 먹히지 않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한다는 이익이 있었다. 둘 사이는 어떻게든지 상호이익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남는다.”⁴⁾ 말하자면 핵무기야말로 쌍방이 소통하는 언어, 이념, 이해(利害)가 없어도 국가 간의 ‘상호생존’이라는 공통이익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국가 간의 상호생존이라는 공통이익이 존재한다는 것을 당사자가 깨닫기 이전에 일어난 6·25전쟁 기간의 핵문제에 관하여 고찰한 것이다. 6·25전쟁은 핵혁명이 본격화되기 전에 일어난 전쟁이었다. 핵혁명 즉 수소폭탄개발과 실험의 충격이 가져온 영향은 개디스(John Lewis Gaddis)의 『역사로서의 냉전』 제8장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⁵⁾ 원자폭

2) Louis J. Halle, *The Cold War as History* (New York: Harper & Row, 1967), pp.xii~xiii. [루이스J.할레-『歴史としての冷戦』 太田博譯(サイマル出版會, 1970) pp.10~11]

3) Yann Martel, *Life of Pi* (New York: Harcourt, 2002). [얀· 마르텔 『파이의物語』 唐澤則辛譯(竹書房, 2004)]

4) John Lewis Gaddis, *The Cold War: A New History* (New York: The Penguin Press, 2005), p.82. [ジョン 루이스 가디스 『冷戦-その歴史と問題點』 河合秀和, 鈴木健人譯(彩流社, 2007, p.102)]

5) John Lewis Gaddis, *We Now Know: Rethinking Cold War Hist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p.221~259. [ジョン 루이스 가디스 『歴史としての冷戦』 赤木完爾, 濟藤佑介譯(慶應大學出版會, 2004), pp.359~420]

탄으로도 히로시마를 한순간에 폐허로 만들었던 것과 비교하면 수소폭탄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히로시마의 원폭참상을 관찰한 니츠(Paul H. Nitze)는 일반적인 폭탄공격과 비교하여 그렇게 큰 피해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러한 사태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인상을 가졌다.⁶⁾ 사실은 히로시마의 인적피해는 1945년 재래식 폭탄에 의한 독일의 드레스덴시(市) 폭격 피해보다 덜했다. 그렇지만 수폭이 등장함으로써 지금까지 니츠가 가졌던 생각도 완전히 바뀌게 된다. 이것은 기존의 원폭을 기관총의 연장으로 생각했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뀌게 했다. 이와 같이 핵무기 역사를 보면, 수폭이 나오기 이전에 일어난 6·25전쟁에서 원폭이 사용될 개연성은 아주 높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2003년에 이 문제를 주로 미국의 대소(對蘇) 전쟁계획과 트루먼(Harry S. Truman) 정권의 핵정책을 중심으로 고찰했었다.⁷⁾ 본고에서는 먼저 2003년의 논문에서 다루지 않았던 트루먼 정권의 핵정책을 부분적으로 소개하고, 이어서 1952년 11월 대통령으로 당선된 아이젠하워의 6·25전쟁과 핵정책을 중심으로 검토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미국의 핵에 의한 억제전략은 아이젠하워 정권에서 처음으로 구축되었다.⁸⁾ 또 '공갈정책(blackmail)'이라고 일컫는 핵전쟁을 불사하는 자세도 많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신전략이 형성되기 전에 일어났던 6·25전쟁을 중심으로 핵위협 및 외교정책수단으로서 핵무기의 역할에 대하여 고찰한다.

6) Paul H. Nitze with Ann M. Smith and Steven L. Rearden, *From Hiroshima to Glasnost: At the Center of Decision-A memoir* (New York: Grove Weidenfeld, 1989), p.43.

7) 赤木完爾編著 『朝鮮戦争：休戦50周年の検証・半島の内と外から』(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03), pp.353~381.

8) 赤木完爾 『ヴェトナム戦争の起源：アイゼンハワ-政権と第一次インドシナ戦争』(慶應通信, 1991) pp.25~42. 小野澤透 「ニュールックの形成：『アイゼンハワ-修正主義』の再検討」 『二十世紀研究』(京都大學)第四号(2003년 12월) pp.39~72. 佐々木卓也 『アイゼンハワ-政権の封じ込め政策』(有斐閣, 2008) pp.12~15.

1. 트루먼 정권

냉전사에서, 6·25전쟁과 핵무기에 관하여 관심이 높은 것은 이 전쟁이 미국이 핵을 독점한 상황에서 일어난 전쟁이었기 때문이다. 사실은 1949년 8월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미국의 핵독점은 끝난 상황이었다. 그러나 6·25전쟁 기간을 통해서 <표 1>과 같이 미국이 원자폭탄과 운반수단을 소련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미국의 핵독점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를 들면 중국군의 전쟁개입으로 미군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는데도 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식이다.⁹⁾

전쟁기간 중, 트루먼이 원폭을 사용하지 않았던 몇 가지 이유를 들면, 첫째, 트루먼 자신의 가치관이다. 트루먼은 원자폭탄을 다른 무기와는 확실하게 별개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핵무기를 사용함으로써 부녀자를 포함한 비전투원에게까지 영향이 크게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9) 有江浩 「自制するアメリカトルーマン政権の戦後核政策」 『國際安全保障』 第三三卷第二号 (2005년 9월) pp.87~107. 赤木 『朝鮮戦争』 pp.353~381. 1990년대 중반까지의 연구는 아래 문헌을 참고, Edward C. Keefer, "Truman and Eisenhower: Strategic Options for Atomic War and Diplomacy in Korea", in Lester H. Brune, ed., *The Korean War: Handbook of the Literature and Research* (Westport, CT: Greenwood Press, 1996), pp.285~305. Roger M. Anders, "The Atomic Bomb and the Korean War: Gordon Dean and the Issue of Civilian Control", *Military Affairs*, vol. 52, no.1 (January 1988), pp.1~6; Edward C. Keefer, "President Dwight D. Eisenhower and the End of the Korean War", *Diplomatic History*, vol. 10, no.3 (Summer 1986), pp.267~289; Daniel Culingaert, "Nuclear Weapons and the Korean War",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II, no.2 (June 1988), pp.177~202; Roger Dingman, "Atomic Diplomacy During the Korean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3, no.3 (Winter 1988/89), pp.50~91; Rosemary J. Foot, *The Wrong War: American Policy and the Dimensions of The Korean Conflict, 1950~1953*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Idem, "Nuclear Coercion and the Ending of the Korean Conflict", *International Security*, vol. 13, no.3 (Winter 1988/89), pp.92~112; Idem, *A Substitute for Victory: The Politics of Peacemaking at the Korean Armistice Talk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Scan L. Malloy, "A 'Paper Tiger?' Nuclear Weapons, Atomic Diplomacy, and Korean War", *The New England Journal of History*, vol. 60, no.1~3 (Fall 2003-Spring 2004), pp.227~252.

〈표 1〉 미소의 핵무기 보유량 비교(1945~1969)

구 분	미국			소련	
	보유(수)	전략무기용	전체위력(MT)	보유(수)	전략무기용
1945	2	2	0.04	-	-
1946	9	9	0.18	-	-
1947	13	13	0.26	-	-
1948	50	50	1.25	-	-
1949	170	170	4.19	1	-
1950	299	299	9.53	5	-
1951	438	438	35.25	25	-
1952	841	660	49.95	50	-
1953	1,169	878	72.80	120	-
1954	1,703	1,418	339.01	150	-
1955	2,422	1,755	2,879.99	200	-
1956	3,692	2,123	9,188.65	400	84
1957	5,543	2,460	17,545.86	650	102
1958	7,345	2,610	17,303.00	900	186
1959	12,298	2,496	19,054.62	1,050	283
1960	18,638	3,127	20,491.17	1,700	354
1961	22,229	3,153	10,947.71	2,450	423
1962	27,100	3,451	12,825.02	3,100	481
1963	29,800	4,050	15,977.17	4,000	589
1964	31,600	4,654	16,943.97	5,100	771
1965	32,400	4,703	15,152.50	6,300	829
1966	32,450	5,040	14,036.46	7,550	954
1967	32,500	5,330	12,786.17	8,850	1,349
1968	30,700	5,221	11,837.65	10,000	1,605
1969	28,200	4,986	11,714.44	11,000	1,815

※ 출처 : Robert S. Norris and William M. Arkin, "Estimated U. S. and Soviet / Russian Nuclear Stockpiles, 1945-94",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 50 (November/December 1994): pp.58~59.

더욱이 전쟁이 일어나고부터 1951년까지 미국정부는 재래식 무기인 소이탄을 사용하는 것조차도 아주 소극적이었다.¹⁰⁾

10) 有江「自制するアメリカ」 pp.95~96. David E. Lilienthal, *The Journal of David E. Lilienthal*, vol. 2, *Atomic Energy Year*(New York: Harper & Row, 1964), p.391.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revised edition (Washington, D. C.: GPO, 1983), p.187.

둘째, 합참을 비롯한 군부에서도, 1945년부터 1950년까지 미국의 원폭목표를 오로지 소련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소련의 도시나 산업지역으로 지향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한정된 폭탄의 보유와 운반수단의 제약으로 인하여 북한지역의 도시나 산업목표에 원폭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따랐고 또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합참은 중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원폭사용에 소극적이었다. 6·25전쟁은 미국으로서는 주변사태에 불과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원폭을 소모해서 안 된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대하여 군부는 물론 원자력위원회에서도 동의하고 있었다.

1950년 11월 30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원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언급한 트루먼의 발언은 잘 알려져 있다. 이 말이 공산진영에는 뜻밖에도 위협으로 들렸지만, 외교적 측면에서는 유엔군 참가국의 결속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중국군이 개입하고부터 맥아더(Douglas MacArthur)도 원폭사용에 적극적이었다.¹¹⁾ 그러나 미국정부는 소극적이었다. 1950년 7월부터 8월에 걸쳐 원자폭탄의 구성부품 10세트(플루토늄 핵심을 제외하고)가 꺾에 투입되었다. 이때 영국본토에도 같이 투입되었다. 이것을 원폭사용과 관련짓거나 또는 원폭의 외교효과를 논하는 견해도 있지만, 이 원자폭탄을 이동하게 되었던 것은 6·25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작성된 대소(對蘇)전쟁에 대비하여 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합참에서 맥아더에게 분산저장을 지시한 것이다.¹²⁾ 또 이것은 당시에는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으며 핵위협용

11) 맥아더는 트루먼의 기자회견 내용이 보도되자, 바로 북경을 포함한 중국의 7개 도시, 게다가 전쟁이 확대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소련의 4개 도시를 원폭목표로 추가하였다고 한다. Diary entry, December 1, 1950. William T. Y'Blood, ed., *The Three Wars of Lt. Gen. George E. Stratemeyer: His Korean War Diary* (Washington, D. C.: Air Force History and Museums Program, 1999), pp.320~321.

12) Joint Chiefs of Staff to CINCFE(COMMAND) Tokyo Japan, July 31, 1950.
http://www.trumanlibrary.org/whistlestop/study_collections/korea/large/sec3/kw133_1.htm(Accessed June 30, 2008).

으로서 계획된 것도 아니었다.¹³⁾

1950년부터 1952년에 걸쳐서 미국의 원폭보유는 크게 증가했다. 전략핵은 물론 전술핵무기도 개발하고 있었다.(<표 1>, 1952년을 참조) 핵무기를 전장에서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전술핵을 전장에 사용하지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고든 딘(Gordon Dean)은 전술핵무기를 중국군 집결지에 사용할 수 있게 야전지휘관에게 위임하자고 주장했다.¹⁴⁾ 전술핵무기는 소련과의 전면전쟁을 피하면서, 6·25전쟁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합참은 이 주장을 수용하여 합참에서 연구하였으나 결국은 동의하지 않았다.¹⁵⁾

미국정부도 전술핵무기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으나, 미디어에서는 이를 크게 다루었다. 또 전술핵무기의 효과에 대해서, 딘은 남캘리포니아대학의 연설에서 이를 강조했다.¹⁶⁾ 신문에서는 트루먼 정권이 휴전협상을 주도하기 위하여 공산 측에의 심리적 압력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미국의회에도 이를 지지하는 의견이 많았다.¹⁷⁾ 중국도 이 보도를 주시하고 있었다.¹⁸⁾ 그

-
- 13) 덩샤오핑은 원폭 그 자체의 이동보다도 운반수단인 B29 폭격기 전개에 주목하여 트루먼의 원폭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See, Dingman, "Atomic Diplomacy", pp.55~64.
- 14) Diary entry, July 12, 1951. Roger M. Anders, ed., *Forging the Atomic Shield: Excerpts from the Office Diary of Gordon E. Dean*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7), p.159.
- 15)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 III,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Washington, D. C.: Office of Joint History, Office of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1998), pp.26~27; Omar N. Bradley and Clay Blair, *A General's Life: An Autobiography by General of the Army Omar N. Bradley* (New York: Simon & Schuster 1983), pp.649~650.
- 16) Gordon E. Dean, "The Responsibilities of Atomic World Leadership", October 5, 1951, in Anders, ed., *Forging Atomic Shield*, p.282.
- 17) 아래의 기사에서 볼 수 있다. "Dean Sees New Era in Atom Weapons", October 6, 1951; "Little A-Bomb", October 14, 1951; "New Battle Bombs Hailed By Senator", November 10, 1951; "Atom Bomb Use in Korea Asked", November 13, 1951, *The New York Times*.
- 18) Mark A. Ryan, *Chinese Attitudes Towards Nuclear Weapons: China and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Korean War* (Armonk, NY: M. E. Sharpe, 1990), pp.149~157.

렇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있어도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트루먼의 기본적인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2. 아이젠하워 정권과 핵무기

1952년 11월,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4주가 지난 뒤, 그는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전황을 시찰하러 한국을 방문했다. 그의 선거공약은 6·25전쟁에의 불만세력을 선거에 반영하여 되도록이면 조속히 명예롭게 전쟁을 종결짓는데 있었다. 6·25전쟁을 종결하겠다는 공약은 그의 당선에 큰 힘이 되었다.

아이젠하워의 한국방문은 외교 및 국방정책 기본계획을 구상하기 위하여 여행기간 중에 신정권에 참여할 주요직위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6·25전쟁은 1953년 10월에 '국가안전보장정책의 기본(NSC162/2)'이 책정되기까지 전략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이젠하워 정권의 최우선과제가 아니었으며 회피해야 할 사태였다.

아이젠하워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특별한 묘안을 생각했다기보다는 한국군 증강계획과 한국경제부흥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있었다. 아이젠하워는 한국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백악관과 합참본부를 두루 방문하고 특히 합참에서 귀중한 정보를 얻었다.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의 후임으로 클라크(Mark W. Clark)가 유엔군사령관으로 취임했다. 아이젠하워는 유엔군의 공중공격과 북한지역 동서해안에의 상륙작전위협으로 중국군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크게 만족했다.¹⁹⁾

19) 중국의 인식에 대하여 아래 문헌을 참고, Shu Guang Zhang, *Mao's Military Romanticism: China and the Korean War: 1950-1953* (Lawrence, KS: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5), pp.232~239.

아이젠하워는 그때까지도 핵무기를 최종단계에서 억제수단으로 사용되는 무기로 생각하고 있었다. 1952년의 11월 첫날, 아이젠하워는 차기 대통령의 자격으로 최초로 실시하는 수폭실험(10메가톤 규모)과 핵무기계획에 대해 원자력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그는 핵무기를 일반적인 재래무기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채택해야 하지만, 자칫하면 핵무기가 인류를 소멸할 수 있는 불안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방문을 통하여 그는 한국군의 실상(12개 사단으로 증강, 포병지원, 군수체제, 장교교육훈련 등)을 알고 싶었다. 20억 달러의 프로그램으로 한국군개혁이 추진되고 있었지만 한국에 보낼 대부분의 군사물자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로 보냄으로써 한국군개혁은 완성되지 못했다.²⁰⁾

아이젠하워 일행은 12월 2일에 비행기로 서울에 도착, 12월 6일에 팜에서 순양함 헬레나를 타고 진주만을 거쳐 12월 14일에 뉴욕에 돌아왔다. 아이젠하워는 이승만의 지나친 요구에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 또한 클라크 유엔군사령관과도 만났으나 아이젠하워는 한국방문에 앞서 브래들리(Omar N. Bradley)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미 알고 있었던 '작전계획8-52'(1952년 10월에 유엔군사령부가 작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토의되지 않았던 것 같다.²¹⁾

이 작전계획은 1950년 12월에 적에게 빼앗긴 평양에서 원산을 연하는 선을 최종목표로 3단계 반격을 각각 3주간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이었다. 적군사력을 최대한으로 파괴하기 위한 포위공격과 적절한 목표에 대하여 상륙작전 및 공수낙하가 계획되었고, 중국과 만주에 대한 공중 및 해상공격, 중국연안에 대한 해상봉쇄도 포함되었다. 공군작전에는 만주에 위치한 적공

20) Allan R. Millet, "Eisenhower and the Korean War: Cautionary Tale and Hopeful Precedent", in Dennis E. Showalter, ed., *Forging the Shield: Eisenhower and National Security for the 21st Century* (Chicago, IL: Imprint Publications, 2005), pp.48~49.

21) Dwight D. Eisenhower, *The White House Years: Mandate for Change, 1953~1956* (Garden City, NY: Doubleday, 1965), pp.93~97; James I. Matray, ed., *Dictionary of the Korean War* (Westport, CT: Greenwood Press, 1991), s.v. "Eisenhower's Trip to Korea", by Robert A. Divine.

군기지에 대한 원폭계획이 포함되었고, 이에 더하여 미군 또는 유엔군 3개 사단, 한국군 2개 사단, 자유중국군 2개 사단 및 32개 포병대대의 증강계획도 포함되었다. 또한 이 작전에 사용될 원폭은 342발에서 482발을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합참은 전쟁확대와 병력 및 군수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이 작전계획에 동의하지 않았다.²²⁾

하버튼 아이젠하워는 한국방문을 통하여 6·25전쟁에 대하여 특별한 지식을 얻지 못한 것 같다. 그는 순양함 헬레나에서 측근들과 함께 여러 문제를 두고 검토하고 있었다. 이 검토과정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의 재편이나, 미국안보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관심이 있었지만, 이승만이나 휴전협상에서 제기된 문제는 토의되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소련과 이에 추종하는 공산주의와 투쟁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역연합을 구성할 것이며, 그리고 상대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생존 전략이 필요한지 등이었다. 이것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국가안보문제를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솔라리움 계획으로 이어졌다. 6·25전쟁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취임하고 4개월 동안은 중점사항으로 다루어지지 못했지만 대통령으로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²³⁾

대통령에 취임한 아이젠하워는 6·25전쟁을 단지 끝낼 것이 아니라, 전쟁수행방법을 달리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공산측이 휴전협정(포로의 자유의사에 의한 송환이 최대쟁점이 되고 있었다)을 받아들일도록 하는 데 있었다. 아이젠하워는 한국방문을 통하여 “소부대 공격에 의한 고지쟁탈전 으로서는 전쟁을 끝낼 수 없다”²⁴⁾고 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그는 중국에 대해서 핵무기사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정체된 휴전협상을 타개하려고 했다.

22) Schnabel and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 III,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p.192~193; Conrad C. Crane, *American Airpower Strategy in Korea, 1950~1953* Lawrence, KS: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0), p.158.

23) Robert R. Bowie and Richard H. Immerman, *Waging Peace: How Eisenhower Shaped an Enduring Cold War Strate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p.83~138.

24) Quoted in Bradley and Blair, *A General's Life*, p.659.

신임 대통령으로서의 군사적 관심은 우선 한국군을 증강하는 것과 미군 이외의 유엔군 부대증강 및 동맹국들의 전쟁비용분담의 확대 등이었다. 또 검토되었던 '작전계획8-52'를 시행하는데 많은 지상군과 공군력이 필요했다. 아이젠하워는 "군사목표에 핵무기 사용이 유리하면 군사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만주를 공격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중국군에게 최대한으로 피해를 가할 수 있을지, 또한 미군의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 국가안보회의에서 재검토하여 4월까지 방책을 제시하도록 했다.²⁵⁾

국가안보회의에서 주관하여 2월부터 줄곧 군사전략을 검토하는 가운데, 당시의 전황으로 봐서, 소모전만으로 일관할 수 없다고 인식하게 된 아이젠하워는 핵무기 사용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중국 및 소련과의 전쟁으로 확대될 위험도 잘 인식하고 있었다. 더구나 핵무기를 사용함으로써 결국은 유엔군이라는 동맹관계의 분열도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다.

2월에서 5월까지 열렸던 국가안보회의에서 아이젠하워는 전술핵을 비롯한 핵무기의 사용에 당분간 승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핵사용에 관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고려하여 군사계획 및 핵무기에 관하여 동맹국과의 어떠한 협의도 대통령의 결심이 있을 때까지 금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미국이 한국의 전장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생각은 2월부터 휴전협정이 체결된 뒤에도 계속되었다. 만약 휴전협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군사작전을 확대할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봐서, 핵무기 사용도 하나의 방책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었다. 또 전술핵무기가 다소 효과가 없더라도 진지전을 계속하는 것보다 효과가 월등하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핵사용에 대한 금기를 깨야 한다는 덜레스 국무장관의

25) The United States Representative at the United Nations (Lodge) to the Secretary of State, New York, February 24, 1953; Memorandum by the Administrativ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Matters (Cutler) to the Secretary of Defense (Wilson), March 12, 1953, U. 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15, Korea, part 1 (Washington, D. C., GPO, 1984), pp.795~797, 815.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²⁶⁾

이러한 일련의 토의에서, 아이젠하워는 6·25전쟁을 핵무기로 해결하려는 방침에서 일부의 경우는 유보하고 있었다. 초기의 공식발언에서 아이젠하워는 공군기지나 부대집결지 등 군사목표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었다. 또한 극히 제한적이지만 전술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미국에도 위험이 따를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핵무기를 사용함으로써 유럽에 미칠 정치적인 악영향과 거의 무방비 상태인 일본의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소련의 핵보복을 생각하고 있었다.²⁷⁾ 그러나 아이젠하워는 이러한 유보적인 자세에도 불구하고, 핵사용을 포함한 공격을 독려하고 있었다. 1953년 4월 휴전협상이 재개됨으로써 이 계획수립을 일시적으로 중지시켰으나, 5월에 다시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되자 다시 계획수립에 들어갔다.

1953년 5월 아이젠하워는 합참의 계획을 보고받은 후,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전쟁확대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계기가 되었다. 합참의 계획은 단순한 핵(核)공갈이나 외형적인 군사력 증강만으로 협상을 주도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군사적 승리에 필요한 조건을 제출하고 있었다. 즉 확실한 성공을 위하여 핵무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는 공세행동을 해서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²⁸⁾

합참의 주장은 한반도에 국한하여 몇 개 정도의 전술핵무기로 중국군과의 전투에서 전황을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보다는 더욱 강도를 높이고 지역의 폭도 넓혀서 한반도 및 중국의 모든 목표물에 대규모 재래무기와 핵공격을 제안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공격은 심각한 위험이

26) Memorandum of Discussion at a Special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n Tuesday, March 31, 1953, *FR*: 52~54, 15, pt. 1: 825~827; Memorandum of Discussion at the 144th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Wednesday, May 13, 1953, *FR*: 52~54, pt. 1: 1014.

27) Memorandum of Discussion at the 145th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Wednesday, May 20, 1953, *FR*: 52~54, 15, pt. 1: 1065.

28) Memorandum by the Joint Chiefs of Staff to the Secretary of Defense (Wilson), Washington, 19 May 1953, *FR*: 52~54, 15, pt. 1: 1061.

따른다고 결론짓고 있었다. 합참은 이 공세에 의해서 미군의 대량피해를 예상하였고 더욱이 중국과 소련을 끌어들이어 전쟁이 확대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었다.²⁹⁾

5월 20일에 열린 국가안보회의는 핵무기 사용에 관한 정점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전쟁이 종결되지 않으면 핵무기 사용을 비롯하여 전쟁확대도 불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즉시 실시한다고는 결정되지 않았다. 확실한 결정은 차후로 보류되었던 것이다.³⁰⁾ 이리하여 전쟁확대의 의도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 내용이 공산 측에 전해지게 된다.

여하튼 6·25전쟁이 일어난 후에 늘어난 핵무기가 재래식 전장에서도 사용가능했으나 제한전쟁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무기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아이젠하워는 적어도 한반도에서 신중하게 핵무기를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핵(核)공갈정책의 기원

휴전협상이 진행하는 가운데 중국을 압박하기 위하여 핵위협, 즉 핵무기에 의한 공갈을 이용했다고 덜레스(John Foster Dulles) 국무장관이 1956년 1월의 잡지 『라이프』에서 밝혔다.³¹⁾ 여기서 덜레스는 신중하게 계산된 핵공갈을 사용하여 중국에 대하여 휴전협정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했다고 공식으로 인정했다.

29) Ibid .. 1061~1062.

30) Memorandum of Discussion at the 145th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Wednesday, May 20, 1953, FR: 52~54, 15, pt. 1: 1065~1068. See. Richard K. Betts, *Nuclear Blackmail and Nuclear Balance*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1987), pp.41~42. 1953년 1월부터 7월 사이의 아이젠하워와 6·25전쟁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정은 아래를 참조, Eisenhower, *Mandate for Change*, pp.93~97. 171-191; Stephen E. Ambrose, Eisenhower, vol. 2: *The President* (New York: Simon & Schuster, 1984), pp.97~107.

31) James Shepley, "How Dulles Averted War", *Life* 40 (January 16, 1956), pp.70~72, 17~78, 80.

이보다 앞서 1953년 12월의 버뮤다(대서양의 영국령 섬)에서 열렸던 미국과 영국, 프랑스 3국 정상회담에서 델레스는, 휴전협정은 강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체결되었다고 주장하였다.³²⁾ 이러한 주장을 아이젠하워도 1963년에 발간된 그의 회고록에서 지지하고 있다.³³⁾ 이렇게 하여 핵무기에 의한 공갈이 6·25전쟁을 종결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여겼다.³⁴⁾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 1953년 3월 19일, 스탈린이 사망한 뒤에 소련지도부가 모택동과 김일성에게 휴전협상을 추진하도록 종용한 사실이나, 그렇지 않으면 소련이 원조를 삭감한다고 지시한 것³⁵⁾을 아이젠하워 정권이 몰랐을 수 있고 혹은 믿지 않았을 수도 있다.

1953년 5월 31일, 델레스 국무장관은 네루(Jawaharlal Nehru) 인도수상과의 회담에서, 휴전협상이 부진하게 끝났을 경우에는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메시지를 인도가 중국에 전달할 것으로 생각했다.³⁶⁾ 모스크바에서는 6월 3일에 찰스 볼렌(Charles E. Bohlen) 소련주재 미국대사도 몰로토프 외무장관에게 델레스의 메시지만큼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경고했다. 즉 “지금처럼 휴전협상이 지지부진하면 미국은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어떤 상황으로 몰아갈지 알 수 없다”³⁷⁾고 했다. 한편으로는, 유엔군 협상단이 최종

32) Second Restricted Tripartite Meeting of the Heads of Government, Mid Ocean Club, Bermuda, December 7, 1953, United States Delegation Minutes, *FR: 52~54*, 5, *Western European Security*, 2: 1811~1812.

33) Eisenhower, *Mandate for Change*, pp.178~181.

34) Ambrose, *Eisenhower*, vol. 2, pp.51~52.

35) Resolution, USSR Council of Ministers with draft letters from Soviet Government to Mao Zedong and Kim Il Sung and directive to Soviet delegation at United Nations, 19 March 1953,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Virtual Archive, Identifier:CE1BFC0F-DFCB-57A0-9656876A5948DB1D. (Accessed June 30, 2008).

36)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Secretary of State, New Delhi, 21 May 1953, *FR: 52~54*, 15, pt. 1: 1068~1069. Sec. Foot, *A Substitute for Victory*, p.178.

37) The Ambassador in the Soviet Union (Bohlen) to the Department of State, Moscow, May 24, 1953, *FR: 52~54*, 15, pt. 1. 1095~1096. The Ambassador in the Soviet Union (Bohlen) to the Department of State, Moscow, May 28, 1953, *FR: 52~54*, 15, pt. 1: 1109~1111.

안을 공산 측에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고는 구체적인 위협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결연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아울러 합참은 클라크 유엔군 대표에게 공산 측의 휴전협정안이 미국이 수용하기 어렵다면 받아들이지 말도록 지시하였다.³⁸⁾

최근 밝혀진 구소련의 사료에서 휴전협정을 체결하는데 공산 측의 결정적인 촉진요소는 1953년 3월 스탈린의 사망이었으며, 미국의 핵위협을 무서워하여 공산 측이 휴전협정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고 판명되었다. 1952년 7월까지 모택동과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늘어나는 전쟁피해와 피폐한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은 미국의 철저한 채래식 폭격으로 북한경제전체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휴전협정이 체결되기 바라고 있었다.³⁹⁾ 또 중국 외무장관 주은래는 같은 해 여름, 쟁점이 되었던 유엔군 측이 제안했던 전쟁포로를 그들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보내자는데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⁴⁰⁾

그러나 스탈린은 완고했다. 스탈린은 중국과 북한이 전쟁의 공지에 몰릴수록 소련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판단하여 중국과 북한의 휴전요구를 거부하고 있었다. 중국이나 북한도 소련의 지원에 의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라서 스탈린의 의향을 무시할 수 없었다.⁴¹⁾ 이런 상황에서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의 사망은 휴전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⁴²⁾ 이러한 변화의 징조는 3월말의 공산 측이 부상포로를 교환하자는 제안에서도 유연성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산 측의 변화는 아이젠하워와 딜레스의 핵

38) The Joint Chiefs of Staff to the Commander in Chief: Far East (Clark), Washington, May 22, 1953, *FR*: 52~54, 15. pt. 1: 1082~1084.

39) 16 July 1952, ciphered telegram, Kim Il Sung to Stalin via Razuvaev,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issues 6~7 (Winter 1995~1996), p.77.

40) Record of Conversation Between Comrade I. V. Stalin and Zhou Enlai, 20, August 1952, *ibid.*, p.13.

41) Odd Arne Westad, "Unwrapping the Stalin-Mao Talks: Setting the Record Straight", *ibid.*, pp.23~24.

42) "New Findings on the Korean War", Translation and Commentary by Kathryn Weathersby,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Issue 3 (Fall 1993), pp.1, 14~18.

위협이 나오기 전의 일이다. 원래 최종적으로 휴전협정을 합의하기까지는 4개월이 더 필요했다. 그래서 덜레스와 아이젠하워의 핵공갈정책이 포로문제에 관하여 최종합의를 끌어내는데 효과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유엔군이 북한지역 댐을 폭격한 시기와, 공산 측이 유엔군 측의 포로송환시기를 양보하는 시기가 거의 같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끝 으 로

6·25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았던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제한전쟁에서 운용할 수 있는 핵전략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6·25 전쟁이야말로 미국이 경험하는 첫 제한전쟁이기도 했다. 둘째, 원자폭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산업목표나 교통중심지를 대상으로 했던 전략폭격의 연장선상에 있는 무기였기 때문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6·25전쟁은 그럴만한 목표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산악을 이용하여 공격해 오는 중국군이 원폭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투하 이후, 아시아에 다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자체가 금기시되고 있었다. 셋째, 만약 원폭을 사용하여 기대했던 만큼 효과가 없었을 경우에, 억제기능을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이미 핵무기가 억제기능을 하는데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었다.

“오늘날의 기묘한 패러독스는 핵무기가 억제기능이 실제로 작동되어야 하나,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이 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다.”⁴³⁾ 미국의 핵전략 창시자 버나드 브로디(Bernard Brodie)는 핵시대에 억제의 어려움을 위와 같이 말하고 있다. 아이젠하워와 덜레스가 시도한 핵위협은 초보적이긴 하나 여러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43) Bernard Brodie, *War and Politics* (New York: Macmillan, 1973), pp.430~431.

아이젠하워와 덜레스는 1952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트루먼 정권의 전략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구상했다. 그것은 핵 우위를 이용하여 미국이 필요하면 핵무기 사용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는 핵무기와 다른 무기와의 심리적 장벽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아이젠하워는 선거운동기간에 덜레스가 가진 핵에 대한 견해를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으나 대통령에 취임하고부터 6·25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그리고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에는 이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직면했을 때는 덜레스의 주장을 수용하였던 것이다. 미국의 의지대로 휴전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핵위협이나, 휴전협정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을 경우의 핵위협은 더욱 명확했다. 그리고 휴전협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해서 아이젠하워와 덜레스는 그들의 핵위협전략이 성공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아이젠하워 정권의 냉전군사전략은 재래식 무기를 감축하고 미국과 서유럽을 방위하는데 핵무기에 의한 억제전략에 의존하게 되었다. 6·25전쟁을 휴전으로 이끄는 데 핵위협이 성공했다고 보는 아이젠하워와 덜레스의 판단은 오해에 근거하는 것이었다. 아이젠하워 정권의 핵정책은 이러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1950년대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위기에 핵(核)공갈정책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계기가 된다.

(원고투고일 : 2010. 1. 1, 심사수정일 : 2011. 1. 24, 게재확정일 : 2011. 2. 1.)

주제어 : 한국전쟁, 휴전, 핵무기, 냉전, 제한전쟁, 트루먼, 아이젠하워, 덜레스, 핵공갈, 맥아더

<ABSTRACT>

The Korean War and Nuclear Weapon Policy of the USA - The Focus in the Eisenhower Years -

Lee, Chong-pan

There some reasons why the nuclear weapons were not used in the Korean War(1950~1953). First, the nuclear strategy is not established in the situation of the limited war. Second, the atomic bomb was the weapon for strategic attack which aimed at industrial targets or traffic centers. There were not that kind of targets during the Korean War. In other words, Chinese Communist Forces whose attack exploits mountains was not the target of atomic bombing. In addition, after the atomic bomb dropping on *Hiroshima* and *Nagasaki*, using the nuclear weapon again on Asia itself was banned. Third, if the expected effect does not appear despite using the atomic bomb, it was concerned that the control function might disappear. The problems about nuclear weapon's control function were already unveiled.

Bernard Brodie, one of the American nuclear strategy creator, mentioned the hardship of control in the nuclear world: "Today's weird paradox is that, though the nuclear must operate its control function, the concern about the malfunctioning of it is inherent." The nuclear threat tried by Eisenhower and Dulles was elementary but throws lots of meaning. In retrospect, Eisenhower and Dulles conceive new strategy during the presidential race in 1952, criticizing Truman's strategy.

It was that American must prepare for exploiting nuclear weapons by using dominant position on nuclear when necessary. Here, the claim that

psychological barrier between nuclear weapons and others should be overcome was brought forward.

Eisenhower did not entirely agree on Dulles' viewpoint regarding the nuclear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but after inauguration accepted his opinion to finish the Korean War and when faced the problem to maintain the Armistice Agreement.

Nuclear threat for extracting the Armistice Agreement by American will, and nuclear threat in case of being unsolved as planned were more evident. And it is continued after the Armistice Agreement. Like this, Eisenhower and Dulles thought nuclear threat was success.

Based on this, the cold war strategy under Eisenhower regime downsized old weapons and relied on nuclear weapon control. The perspective that the nuclear threat strategy was successful in terms of deriving the Armistice Agreement of the Korean War is based on misunderstanding of Eisenhower and Dulles. However, the nuclear policy formed from such misunderstanding is developed into the policy that decided the victory by nuclear weapons in a series of crisis in 1950's Asia.

Key Words :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Nuclear Weapon, Cold-War, Limited war. Harry S Truman, Dwight David Eisenhower, John Foster Dulles, Nuclear Blackmail, Douglas MacArthur

